

사설

제주지역 청년실업과 사회학적 영향

언제부터인가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대학교에서도 학생 취업전략본부를 두어 학생취업률 제고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지만 꽤 많은 성과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인다.

제주도의 GRDP는 전국평균의 80% 수준, 법인세 징수액은 전국의 0.16%, 소득세는 0.40% 비중으로 제주도가 항상 대정부 요구에 대응하는 '1% 논리'에 비교하면 초라한 경제력이다. 그만큼 양질의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균원적으로 열악한 경제 환경 속에서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칭 논의나, '눈높이를 낮추어라' 하는 요구는 제주지역 젊은이에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MB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하여 일자리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결코 중앙정부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관이 주도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일자리 창출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의 유치 및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제주도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인프라는 물론이고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유치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때다. 그것은 '세금을 통해 만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세금을 창출하는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의 '필요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지속가능성이 있지 정부의 '인위적' 일자리 창출은 관련 예산이 사

라지는 날, 그냥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은 기업의 '필요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고, 또한 그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활동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수반되어야함을 명심해야 한다. 즉 투자 인센티브만 쟁기고 고용 없는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

이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청년실업문제의 사회학적 의미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의 주체가 돼야 할 젊은 청년들이 좋은 직장이 없어서 고향으로 오지 못하고 혹은 타 지역으로 나감으로써 핵가족 시대의 지역 및 가족공동체는 매우 빠르게 해체 돼가고, 모둠별 초, 제주어 등의 우리 제주문화는 빠른 속도로 잊히고 있다.

대회를 통해 제주어를 보존하고 하는 자구책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러운 건강한 가족 및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우리의 제주문화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생명력이 있어 보인다. 물론 타 지역에 나가서 나름대로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여기 아름다운 고향 제주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있을 때 우리 제주문화의 보전은 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일자리 창출은 경제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그 영향은 크다고 하겠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타 지역, 세계를 향한 열린 마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대학문화를 만들자

대학 교육은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학 생활을 경험해 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키운 것은 강의실 밖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체험과 고민이었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상상력이 풍부한 인생의 격동기, 그 젊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포용하기에 강의실은 너무 좁고 경직적이다.

책도 그렇다. 어쩌면 책은 이미 죽은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다. 세상은 책보다 훨씬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것이다. 책은 그러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그 책을 넘어야 진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읽어야 할 것은 책이 아니라 세상이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기쁨, 갈등, 모순으로 넘쳐나는지,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한 것인지, 대학에서 정말로 공부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의미와 역할을 깨닫는 것이다.

이른바 '스펙', 순위, 학점, 영어점수로 대표되는 정량적 스펙이 정말로 성공으로 가는 길인가? 기업들이 정말로 그런 스펙을 원하고 있을까? 스펙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일종의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스펙은 젊은이들의 문제의식과 역동성, 그 무한한 가능성을 순차시키고 체제에 안주시 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은, 스펙에 매몰된 젊은이들이 세상을 이끌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혁신할 것으로 아무도 믿지 않는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믿지 않는다.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와 조직의 악정에 도움이 되는 소시민, 착한 젊은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삶이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식으로 착한 젊은이는 세상에 너무나 많다. 그런 영역은 '블루 오션'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으로 붉어 물든 '레드 오션'일 뿐이다. 성공의 기회가 너무 적어 성공을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방향인 것이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즐겁고 경쾌하게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은 항상 영감을 자극하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제주대학교 왕벚꽃 나무들이 만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벚꽃이 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스펙 쌓기? 그려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날리는 꽃잎들이 참으로 예찬하다. 이 봄에는 자발적인 문화적 실험들이, 새로운 형태의 작은 축제들이 날리는 꽃잎 속에서 함께 만개하기를 기대해 보고 싶다.

일 배우고 영어 익히고 돈까지… 해외인턴십 ‘일석삼조’



‘2011년 제주대 대학생 해외인턴십’ 발대식이 3월 24일 오전 11시 제주대학교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취업에 필수학목인 외국어능력과 실무경험, 두 마리 토키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바로 해외인턴십이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지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별 생각 없이 지원했다가는 시간만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과연 해외인턴십은 어떻게 준비해야 100% 즐길 수 있는지 파악해보자.

해외인턴십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어능력이 필수적이다. 대상자를 뽑을 때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덕목이다. 또 실질적인 업무를

익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급인턴십은 선택의 폭이 넓다. 특별히 기업에서 돈을 주면서 학생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하는 기업들도 많고, 분야도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유급인턴십은 경제적 부담감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선택의 폭이 무급인턴십보다는 적고, 분야도 한정적이다. 또 돈을 받는 만큼 업무량이 많아 부담이 가기도 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전공을 잘 살릴 수만 있다면 무급인턴십보다 실질적인 업무를 체험할 수 있기도 하다.

이제 해외인턴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면 해외인턴십에 실제로 도전해 보자. 우리대학에서도 JDC와 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해외인턴십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학교 외에 교육과학기술부나 다양한 기관에서도 해외인턴십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인턴십의 성공여부는 지원자 스스로가 자신의 전공분야와 관

심분야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고용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김진은(영어교육 4)씨는 “해외인턴십을 가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바로 기업선정”이라며 “기업선정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조조해하고, 조급함을 갖게 된다. 이 조조함 때문에 무턱대고 기업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잘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턴십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적극적인 자세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화연(중어중문 4)씨는 “외국에 혼자 나와 있다 보면 부담감이 클 수가 있다. 그럴 때 일수록 적극적인 자세로 외국인들과 마주쳐야 한다”며 “그래야만 외국어 실력도 늘고, 다양한 시각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서희(일어일문 06학번)씨는 “외국인들은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점들이 많다. 문화적 차이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해당 국가의 문화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박영준 차관 ‘선진 국가 도약과 글로벌 전략’ 특강

지식경제부 박영준 제2차관이 지난 1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은 ‘선진 국가 도약과 글로벌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박 차관은 “세계 경제 중심이 한중일 3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는 제주가 세계 경제 중심의 핵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제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 차관은 세계시대의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아프리카 지하자원을 독점해 아프리카는 물론 세계와 우리나라까지 좌우지하고 있다”며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는 물론 안보적으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 그는 “우리가 중국, 미국, 일본, 아



박영준 제2차관이 지난 1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시아 국가들을 이용하고 중국이라는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생들에게 제주가 아니라 세계로 눈을 돌리라고 주문했다. 박 차관은 “카자흐스탄에 고려인들이 약 1% 정도에 불과한데 국

립 카자흐스탄 대학 학생 중 20% 이상이 고려인”이라며 “기회는 많다. 소위 스페, 특히 영어를 출중히 갖추고 우리가 개척하지 못한 중남미지역, 아프리카지역에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지 수습기자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 선정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소장 이효연)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의해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생물다양성 보존협약이 1992년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이후 자국의 생물자원 보전은 세계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사업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이 출범. △산림유전자원 국가관리 네트워크 구축 △전 지역의 수집 및 보존·관리 △수집 자원의 특성평가 △품종개발 등 국가적으로 유용한 유전자원의 확보와 관리업무에 국가가 직접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주)참농기자기 산

림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대학 연구소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는 2007년부터 잔디와 무궁화의 유전자원을 총 20품종 1275점을 수집해왔다. 또 현

날 전달식에서 허향진 총장은 “현대에 생물자원의 다양성은 곧 나라 경쟁력을 판단할 척도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생물 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신산업 발굴 사업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같은 원장은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행사가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이 연구소 소재 온실로 이동하여 그간 연구소에서 보존관리 해온 무궁화 종자들을 직접 견학하고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는 앞으로 민·관 협력체계 하에 잔디 및 무궁화 외에도 고부가가치의 산림자원 육성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은실 수습기자

전자기술 중에서도 특히 정전기 기반의 인쇄전자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인쇄전자기술은 정전기 기반 인쇄전자기술은 기판 상에 직접 전자회로를 직접적으로 프린팅하기 때문에 기존의 석판인쇄 공정과 달리 생산단계가 낮은데다 환경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또 잉크나 기판 등 인쇄재료의 자유도가 높아 다양한 분야로 적용·진출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바이오융합기술, 디지털 융합기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망된다.

연구센터는 2006년부터 기계시스템공학부 최경현 교수를 중심으로 인쇄전자 분야 과제를 수행해 온 연구팀을 모태로 설립됐다. 이들은 인쇄

인쇄전자기술 연구센터 개소식 열려

인쇄전자기술연구센터(e-Printing Technology Research Center, 센터장 최경현)가 지난달 25일 공대 4호관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인쇄전자기술이란 인쇄 가능한 기능성 전자잉크를 이용해 다양한 전자소자를 제작하는 기술이다. 또 차세대 모바일 IT 기기 전자제품 생산에 적합한 공정 기술로 알려져면서, 기존의 반도체 공정을 대체하는 신기술

어린이급식관리센터 개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고양숙 식품영양학과 교수) 현관식이 지난달 28일 자연과학대학 1호관 4층에서 열렸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제주도내 어린이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영양·위생의 품질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대에 위탁 개설했다.

센터는 향후 △도내 어린이 급식소 지원업무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지원 △위생관리 지원 및 위생교육 자료개발 △위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집단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집단급식소 급식관리 수준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오덕철 도서관장은 “레프웍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궁금한 점이 있는 교수 및 연구자들을 위해 교육을 실



외국어교육원은 지난달 31일 제1차 모의토의 경시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

황대경씨 모의토의 경시대회 최우수

외국어교육원(원장 이기석)이 지난달 18일 제83회 모의토의 및 2011 학년도 제1차 모의토의 경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경쟁력의 성적에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열렸다. 경시대회는 230여명의 학생들이 응시해 최우수상 황대경(수의 4), 우수상 최슬기(수의 2), 장려상 고은희(초등교육 3), 김태현(관광경영 4), 노혁상 노순구(수의 3)와 3명의 학생

이 선정됐다.

제주대(총장 허향진)는 지난달 31일 경주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1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국·공립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제주가 세계 7개 자연경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있

2011학년도 상반기 대의원총회 열려

재적 219명 중 181명 참석

2011학년도 상반기 정기 대의원총회가 지난달 29일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대의원 총족수 219명 중 181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총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졸업앨범 제작업체 선정 과정 보고, 학생회칙 및 선거·감사 시행 세칙 개정안 승인 의결, 1학기 중앙자치기구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 예산 분배 승인 의결, 중앙자치기구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 예산안 승인 의결 등이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다.

학생회칙 및 선거·감사 시행 세칙 개정은 △기존 학생총회의 개최·의결이 재적회원을 기준으로 진행된 것을 재학회원으로 변경했다. △단과대학 학생회가 단과대학총회와 단과대학 학생대운영위를 모두 운영한 다라는 조항을 단과대학총회는 단과대학 학생회가 열고, 단과대학총회 운영위는 단과대학대의원회가 열도록 개정했다.

한편 졸업앨범 제작업체 선정은 지난달 7일 공고를 통해 2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후 지난 17일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심사위원 13명과 참관인 4명, 업체대표 2명 등 총 19명이 참석



지난달 29일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2011학년도 상반기 대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갖도록 개정됐다.

이후 진행된 1학기 중앙자치기구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 예산 분배 승인, 중앙자치기구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 예산안 승인 등은 재적대의원 2/3이 상 출석에 출석대의원 2/3찬성으로

한 가운데 공개입찰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927점을 획득한 롯데스카이힐포토샵이 887점을 얻은 A업체를 40점 차이로 앞서 2011학년도 졸업앨범업체로 선정됐다.

김민석(정치외교 4) 총대의원회의장은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총대의원체제가 본격적으로 틀을 갖추면서 많은 수의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졸업앨범 제작업체 선정은 지난달 7일 공고를 통해 2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후 지난 17일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심사위원 13명과 참관인 4명, 업체대표 2명 등 총 19명이 참석

논문작성 프로그램 레프웍스 선보여

중장도서관 주최

논문작성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레프웍스(refworks) 프로그램이 이용교육이 지난달 30일 평생교육원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열렸다.

레프웍스 프로그램은 이용자들이 전자저널이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한 결과를 수집하여 개인별 자료 구축 및 저장된 자료를 쉽게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참고정보원 관리도구이다.

또한 이용자편의 인터페이스와 한글지원이 가능하며, 참고문헌을 생성하고 기워 넣을 수 있다.

오덕철 도서관장은 “레프웍스를



지난달 30일 평생교육원 101강의실에서 레프웍스 프로그램 교육이 열렸다.

시하게 됐다”면서 “도서관은 앞으로 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 클리핑

이월옥 명예박사 숙환 별세

이월옥 경제학 명예박사가 지난 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고인은 1925년 제주시 한경면에서 태어나 16세에 단신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협화고무공장과 (주)동경신흥업을 설립했다. 또 그는 (주)제주팔레스개발을 설립해 제주팔레스관광호텔·하와이관광호텔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2003년에는 제주대에서 명예박사를 받았다.



허향진 총장 장지원 학생에게 장려금 전달

지난달 31일 열린 시상식에서는 각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각 20만원, 우수상 15만원, 장려상 10만원, 노력상 5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외국어교육원은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기적으로 연 6회 모의토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 2회 모의토의 경시대회를 실시해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물론 정기 토의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지원 학생은 열악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착한 성성과 성실한 자세로 모범적인 인성을 지

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매우 뛰어난 성적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허 총장은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고 있는 장지원 학생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학업장려금을 전달했다.

한삼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약법’ 발간

한삼인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인 로스쿨 교재인 「계약법」을 발간했다.

책에는 민법 제3편 채권편 중의 제2장 계약을 계약법 총론과 계약법 각론으로 나눠 관련 학설과 판례를 정리했다.

특히 이 책은 관련주제의 판시

사항과 판결요지를 다루며 소송 전문가로의 능력을 쌓아나도록 돋는다.

한 교수는 현재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편집위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전문간호사 도입취지를 살리자

학술기고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과제

과거에 비해 간호사는 보다 전문적인 이미지로 바뀌었고, 전국적으로 간호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졸업 후 취업이 잘 되는 과정으로 인식되면서 간호학과의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간호사'라는 타이틀에 대해서는 서울에 소재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의료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다. 전문간호사로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서, 전문간호사를 알리고 이들이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의 효과를 학문적으로 입증하여 이 제도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일종의 사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방영되는 드라마에서 바치지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간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보았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최근 다소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기는 하지만, 단편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그려지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몇십년 전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듯하다. 그러나, 몇 해 전 병원을 배경으로 한 국내 한 드라마에서, 전문간호사의 현실이 생동감 있게 묘사된 적이 있다. 의사들

이 학회로 잠시 부재한 상황에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는 위급상황을 맞게 되었고, 의사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몇십 분 정도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이 환자는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전문간호사의 응급 처치로 이 환자는 위급한 순간을 넘기고 해피엔딩을 맞이하였지만, 그 후 벌어진 의료진의 상황은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전문간호사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충분히 준비된 인력이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도 전문간호사에게 그 상황을 맡길 것이라는 의사의 향연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인 판단을 근거로 처치를 수행하였다. 이유로, 관련 의료진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아쉽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전문간호사제도는, 1990년대 들어서 빌 클린턴 정부가 수행하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전문간호사는 3차 의료기관에서 중환자나 암 환자 등과 같은 고위험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 의료기관에서 일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환자를 관리하면서, 부족한 의사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석사 과정에서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함과 더불어 최신 기술 습득을 위한 임상 실습이 강조된 교육을 받은 간호사만이 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으며, 복잡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양성되어 왔다.

중환자 전문간호사를 운영하는 경우 인공 호흡기 적용 일수가 감소하여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었다거나, 전공의 대신 전문간호사가 전문의와 한 팀이 되어 환자를 관리하는 경우, 수행하는 업무량은 더 많으면서 환자의 재원일수는 감소하였고, 환자의 치료 결과나 합병증 발생률은 비슷하였으며, 환자나 보호자의 만족도나 삶의 질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결과들은 전문간호사의 향연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인 판단을 근거로 처치를 수행하였다. 이유로, 관련 의료진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아쉽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전문간호사제도는, 1990년대 들어서 빌 클린턴 정부가 수행하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전문간호사는 3차 의료기관에서 중환자나 암 환자 등과 같은 고위험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 의료기관에서 일자

국내에서는 전문간호사에 대한 법제화 이전부터 대형병원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필요에 의해 이미 전문간호사가 운영되어 왔다. 일부 사립 대형병원들에서 시작된 전문간호사제도는 각 기관별로 운영이 확대되면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고,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의도로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법제화 추진 시 정부는 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한 근본적 취지를 '전문분야에서 의사 인력과 비교할 때 보다 비용-효과적인 인력이며,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실무표준화와 질적 수준의 유지 및 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전문직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법 제 56조는 간호사 면허 이외에 전문화된 분야별 간호사를 인정한 것으로, 2006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총 13개 분야(보건, 마취, 정신, 가정, 응급, 산업, 노인, 호스피스, 중환자, 감염관리, 아동, 임상, 종양)로 확대하였다.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제시한 임상경력을 충족하는 간호사가 석사과정인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문간호



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삼성서울병원) 전문간호사 과정 중 미국 실습 사진.

사자격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전문간호사 과정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이론과 실기를 요구하는 과정으로 실습이 강화되어 있으며, 자격증 취득까지 최소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년 약 800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전문간호사 과정에 입학하고 있으며, 최근 2년 동안에도 매년 300~400명 이상의 전문간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전문간호사들이 비용-효과적인 인력임이 계속적으로 제시되면서 그 제도가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의료 환경이 다른 국내에서는 전문간호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외국에 비해 작고, 의사의 권한에 대한 위임의 정도 등이 기관마다 다르므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의 의료 환경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간호서비스의 효과를 입증하는 결과연구는 국내에서는 초기 단계이다. 필자의 연구에서는 전문간호사의 간호서비스가 암환자의 통증 및 피로를 감소시키고, 만족도 및 삶의 질을 증가시켰으며, 예기치 않은 응급실 방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성만을 중시하는 의료 환경에서는 환자에게 미치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간과될 가능성도 있다.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전문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급여화는 가능한 것인지, 국내 현실에서 전문가적 상급 실무의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의사·전문간호사·간호사 간 행위의 중복 시 행위의 주체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현재 의료기 관별로 다양 한 전문간호사의 행위를 어떻게 표준화 할 것인지 등이다.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더디다. 그렇지만, 할 일이 많기에 더욱 힘이 날 수 있는 것이 고용되어야 하는 이러한 전문간호사 아니겠는가.



김민영(간호학과) 교수

당신의 '고도'는 무엇입니까



<고도를 기다리며>

사위엘 베케트 저 / 오중자 옮김

사위엘 베케트
1906~1989)
의 '고도를 기다리며 (En attendant Godot)'는 1952년 파리에서 출간된 희곡으로 2막

그러나 왜 그들이 고도를 기다리는가를 밝히는 것은 독자의 뜻이다. 작가는 고도의 정체를 철저한 익명성을 통해서 은폐시킨다. 따라서 고도는 독자들에게 그만큼 다양한 해석의 폭을 가진다. 독자는 등장 인물들이 왜 고도를 기다리는가를 알기 위해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

작품의 내용을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등장인물은 모두 5명인데, 그들은 바로 블라디미르, 에스트라공, 포조, 럭키, 소년이다. 작가는 이 등장인물들을 1막에 등장한 순서대로 2막에도 등장시키며 고도를 기다리는 행위가 무한한 반복이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수행되어야 할 노력을 암시한다.

인물들의 등장 순서는 짚을 이루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등장하고 이들은 막이 끝날 때까지 무대에 함께한다. 반면에 포조와 럭키는 막의 중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며 소년은 막의 끝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인물들이 등장 순서는 짚을 이루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등장하고 이들은 막이 끝날 때까지 무대에 함께한다. 반면에 포조와 럭키는 막의 중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며 소년은 막의 끝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작가는 제목을 통해서 고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고도를 기다리는가라는 의문을 독자에게 던진다. 물론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작품 속에 드러난다.

조와 럭키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고도를 기다리면서 대화를 나누며 무료함을 달랠 때 그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이다. 따라서 고도는 독자들에게 그만큼 다양한 해석의 폭을 가진다. 독자는 등장 인물들이 왜 고도를 기다리는가를 알기 위해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

한편 등장인물의 관계를 살펴보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매일같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고도를 기다리는 친구 사이인ade 반하여 포조와 럭키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이루는 인물들이다. 또한 소년은 이 희곡 속에서 등장하지 않는 고도의 심부름꾼으로서 고도가 실제함을 증명하고 나아가 에스트라공과 블라디미르에게 내일이면 고도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을 전하여 그들의 무료하고 지루한 기다림을 부여하는 매개자이다.

독자는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의미를 포착할 수 있다. 작가는 블라디미르의 대사를 통해서 인간의 삶에 대한 자세를 투영한다. 블라디미르는 포기하려는 자에게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 버리려고 아직 다 해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을 통해서 독자는 고도를 기

다리는 데에는 끈기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작품 내에 작가가 심어놓은 의미이고 작품 밖에서 볼 때 독자가 찾을 수 있는 의미는 대화이다.

에스트라공은 극 중에서 낯잡을 여리 번 자고 꿈을 꾸는 데 반하여 블라디미르는 낯잡 대신에 사색을 많이 하지만 결국 외로워서 에스트라공이 자는 것을 방해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작가가 희곡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대화를 고독에서 해방시켜 주고 존재하게 만드는 장치로 삼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작가는 데카르트의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변형하여 '대화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얼핏 보면 이 작품에 지껄여진 대사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고도를 기다리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책을 읽고 나서 독자 스스로 해석해 볼으로써 대사들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반추하는 것이 이 책의 묘미이다. 물론 이러한 의미 부여는 각자의 뜻이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무료함을 대래기 위해서 읽는 것도 이 작품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임은 틀림없다. 여러 번 읽어 보면 볼수록 여러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이 작품이 단순한 기분전환이나 심심풀이 이상이 되길 바란다.

고영재 철학과 조교

2011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입 · 세출예산 현황

1. 세입예산

과 목	2011학년도 예산액(A)		2010학년도 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회비 수입	36,136,171	81.2%	35,195,224	72.5%	940,947	2.7%
이월금	3,154,576	7.1%	6,287,033	12.9%	-3,132,457	-49.8%
보조금	1,611,674	3.6%	1,836,806	3.8%	-225,132	-12.3%
감수입	452,000	1.0%	828,000	1.7%	-376,000	-45.4%
소비자	41,354,421	92.9%	44,147,063	90.9%	-2,792,642	-6.3%
수입 대체경비	3,164,279	7.1%	4,429,224	9.1%	-1,264,945	-28.6%
합계	44,518,700	100.0%	48,576,287	100.0%	-4,057,587	-8.4%

2. 세출예산

과 목	2011학년도 예산액(A)		2010학년도 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기 준	26,202,222	58.9%	24,985,157	51.4%	1,217,065	4.9%
운영	5,798,192	13.0%	6,311,034	13.0%	-512,842	-8.1%
사업비	9,148,005	20.6%	12,650,870	26.1%	-3,502,865	-27.7%
과제금	1	0.0%	1	0.0%	0	0.0%
감지출	1	0.0%	1	0.0%	0	0.0%
예비비	200,000	0.4%	200,000	0.4%	0	0.0%
소비자	41,354,421	92.9%	44,147,063	90.9%	-2,792,642	-6.3%
수입 대체경비	3,164,279	7.1%	4,429,224	9.1%	-1,264,945	-28.6%
합계	44,518,700	100.0%	48,576,287	100.0%	-4,057,587	-8.4%

3. 과목별 세출예산



무론유설

고영철
법정대학원장

구라도서관(口羅圖書館) 개관을 앞두고

장의 각 칸마다 누가 어떤 책을 기증했는지 알 수 있도록 '아무개의 기증도서 코너'라는 표찰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구라학습당'이라고 문패를 단 것은 이곳이 또한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 읽고, 꿈꾸고, 상상하고, 탐색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도 영화 속의 영웅처럼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당장 눈앞의 이유 때문에 자신을 위장하거나 포장하지 말라. 결국 하늘이 저 놓은 덧에 걸려들게 되어있다는 것을 늘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개의 거짓말을 관리하면서 2개의 거짓말이 필요하고 다시 4개의 거짓말을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 개의 거짓말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지난 8월 국회 청문회 테스트(위장전입·부동산 투기·병역기피·세금탈루·논문표절 등)에서 거짓말 탐지기에 걸려 탈락한 장관후보들의 어록(?)을 반면교사로 삼아 늘 자신을 성찰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 구라(거짓/짜)이고, 앙구라(참)인지, 그리고 어디

까지가 구라(口羅)이고 비구라(非口羅)인지지를 식별해, 항상 옳은 일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구라이고, 그 힘과 생각은 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류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성인, 사상가, 문인, 학자 그리고 각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도 대부분 입으로 먹고 살았던 위대한 구라군(口羅君)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범인(凡人)들에 비해 독서량도 많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뛰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를 보려면 TV나 컴퓨터 앞에서 마우스나 리모컨을 돌리면 되지만 미래를 보려면 책을 읽어야 합니다.

독서는 남의 인생을 살아보는 것이고, 영웅의 꿈을 스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라도서관은 이처럼 영웅들의 꿈과 삶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면서 이들의 꿈을 파는 백화점입니다. 이곳은 전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아니면 굴복할 것인가, 그리고 가치를 창조할 것인가 아니면 파괴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전사의 학습당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구라도서관', 다른 한쪽에는 '구라학습당'이라는 문패를 달았습니다.

오늘도 안팎이 내다보이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면, 넓적하게 배치된 4인 또는 6인용 책상들에 앉아 뭔가에 몰두하고 있는 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고급스런 색깔의 양탄자가 깔려 있고, 두개의 출입문 양쪽에는 응접실용 스탠드가 문지기처럼 서 있습니다.

창밖을 마주 보게 배치한 테이블 위에 자리한 개인독서용 스탠드에서는 특건드리기만 해도 은은한 빛이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도서관 양쪽에 위치한 두 개의 대형 책장에는 약 2천여 권의 책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약 8백여권). 한쪽 벽에 걸린 대형 세계지도 속의 비단길을 걷다 보면, 세계는 넓고 갈 곳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곳을 매일 안방처럼 드나드는 단골손님들이 언젠가는 저 수천 권 책 속의 전설적인 인물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전설적인 영웅 돈키호테 같이 여러분의 꿈을 키우는 인큐베이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재욱
삼성 LED 전 사장

한우물이라도 제대로 파라

CEO에게 듣는다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주최하는 'CEO에게 듣는다' 세 번째 강좌가 지난달 25일 오후 2시 공과대학 4호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좌에는 LED 전문기업인 삼성 LED의 사장을 역임한 김재우씨가 '글로벌 챌린지(Global challenge)'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전 사장은 삼성의 반도체사업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성공의 덕목을 강연했다. 김씨는 먼저 적절한 시기와 과감한 결단을 강조했다. 그는 "삼성이 반도체사업에서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적절한 시기에 과감한 결단을 가지고 투자했기 때문"이라며 "인생도 마찬가지다. 기회는 꼭 찾아오고, 그 기회를 발견해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

을 찾아내고,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화 속에 세상은 다양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내 자신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일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집중해야 한다. 많은 것을 하려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아진다"며 "언제나 자신에게 주워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주 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은 누구에게나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자신의 능력을 찾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비하하거나 실패감에 젖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모든 일에 학습하는 자세로 임한 것이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덕 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사소한 부분이라도 배울 점이 있다. 잘못한 점은 반성을 통해 배우고, 잘한 점은 본받으며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미래의 딕쳐를 다양한 위기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사장은 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했다. 그는 "꿈은 인간을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미래는 꿈꾸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장은 그 꿈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는 에너지고 갈, 기후변화, 물 부족, 노령화 등 수많은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며 "그대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주역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일어든 항상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미래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강보배 기자



독자기고

김명지
정치외교학

술 강권하는 음주문화 개선을

술을 권하고 강요하는 것일까?

첫째로, 대한민국 기성세대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학생도 법률상으로 성인임을 인정받기 때문에 일종의 '통과의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해방감을 상징한다. 새내기들은 고등학교시절까지 어른들로부터 금지했던 '술'을 통해 통제파괴라는 쾌감을 느끼게 되고 일부 재학생들은 본인들이 즐겨왔던 것이기에 새내기에게 강요하게 된 것이다. 셋째로, 술의 고유한 성질로, 모든 사람들이 딱딱한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술에 취해 모든 사람들이 무장해제가 되기 때문이다.

정말 뒤풀이는 술을 마시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일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 집단의 구성원이 모두 만족할 만한 대안들은 알마든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의 뒤풀이

행사가 끝난 후 각 학과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가는 것은 어떤가? 국문과에서는 농아시설에 찾아가 책을 읽어주고, 미술전공생들은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 공공미술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선사한다면? 뒤풀이 문화가 이렇게 바뀐다면 놀기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문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은 올바른 지성인을 양성하는 곳이라 한다. 우리 모두가 뒤풀이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의미 없는 게임들을 반복하기보다는 의미있는 활동을 해보자. 앞으로 제주대에서 흥청망청 즐기기만 하는 뒤풀이보다는 진짜 대학생다운 뒤풀이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물론 면접을 보시는 선생님들의 영어 실력은 영어권 외국인 못지 않았지만 나의 영어 실력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이 아닌 영어에 대한 적극성, 흥미도를 물어보셨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학교의 도움으로 어학연수를 기는 것이라면 현재의 영어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자기 자신의 적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어를 잘해서 어학연수를 보내주는 것이 아닌 앞으로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보내주는 것이 진정 의미 있는 학교의 어학연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15일 남자 7명, 여자 10명 등 총 17명으로 이루어진 우리 팀은 필리핀 CEBU로 출발했다. 우리는 6주간 필리핀 CEBU에 있는 CDU ESL CENTER에서 스파르타 코스를 이수했다. 스파르타 코스는 주5일 하루에 8시간 영어강의와 야간을 유후 3시간이 포함돼 있는 코스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1시간 넘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겠지



독자기고

강재연
생물 2

도서관 이용 예절 엉망, 타인 불편은 전혀 고려안해

고 공부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으로 반복되다보니 일일이 비켜달라고 말하는 것도 지겹고, 책 치워놓는 것도 일이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즘은 아래 좌석을 반납하고 다른 빈자리를 찾다가 그 자리 번호표를 새로 발급받고 들어간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분명 도서관 입구에 떡하니 도서관 이용방법이 스크린에 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제주대 학생 누구나 학생증을 가지고 있다. 그저 열람실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증을 바코드에 찍고 자리를 골라 인쇄되어 나오는 종이를 뽑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곤란한 사람이 있는 건가? 그저 열람실 들어가기 전에 손가락만 살짝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건 힘들지 않

다는 걸까?

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시설이다. 공공시설 이용 수칙을 당당히 여기고 그저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지 않은가. 필자를 포함해 모든 학생들이 '자리표 뽑아봤자 다른 사람이 와서 자리 비켜달라고 하진 않을까?' 같은 불안감 없이 떳떳하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초등학교를 거쳐 고등학교 때까지 제도와 규칙에 묶여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안다. 드디어 대학생이 되어 예전과는 달리 자유가 생겼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 해내지 못하고 관리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아직 대학생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이런 작은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성인임을 주장하는 것도 하세에 지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금 번거롭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 나 자신을 위해 좌석 배정 규칙을 준수하며 도서관을 이용한다면 좀 더 질서정연한 대학생활을 영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주대 학생들에게 권한다. 나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함으로써 서로 원원하는 학창시절을 보내자고.

동문칼럼

모든 것은 연관돼 있고, 변화 발전한다

1993년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선배로부터 들었던 조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고 변화 발전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크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러한 조언이 상당히 명확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최대한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응집된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면, 넓적하게 배치된 4인 또는 6인용 책상들에 앉아 뭔가에 몰두하고 있는 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고급스런 색깔의 양탄자가 깔려 있고, 두개의 출입문 양쪽에는 응접실용 스탠드가 문지기처럼 서 있습니다.

장밖을 마주 보게 배치한 테이블 위에

박주희(식품영양학과 93학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 되어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사회에 분노할 줄 알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분명 많은 것들과 연관되어 있고, 또한 그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 연을 맺은 것이고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도종환님의 <마음의 쉼표>중에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잘 들여다보면 가지 맨 끝의 가늘고 여린 가지가 가장 싱싱합니다. 그곳이 가장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곳입니다. 꽃은 그 여린 가지 위에서 피어납니다. 잎들도 그 활동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의원이 된 지금, 의원에서 복지안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제주도의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실현해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득 이 글귀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 이유는, 가장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곳이 바로 대학이며 또한 그곳에서 피어나는 어린 잎은 대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여린가지가, 그 어린잎이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중심인 세상을 되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그때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혹은 그 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바르게 하려면, 많은 경험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주변의 많은 이들과 공감을 하고 토론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지식과 정보도 중요하지만,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중심인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분노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어학연수, 국제교류센터가 답이다

독자기고

지난해 11월 29일 대망의 국제교류센터 주관 필리핀 단기 어학연수 면접의 날이었다. 면접을 보기 전 지원 자격으로는 TOEIC 500점 이상, 학부성적 3.0 이상(전 학기까지 평점 평균)이었다. 면접은 생각보다 간단히 진행됐다.

영어 어학연수이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되는 질문도 있었지만 영어에 대한 것이 아닌, 평소 영어에 대한 흥미와 앞으로 영어공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 그리고 만일 이번 면접에 합격해서 필리핀에 가게 될 경우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는 식의 질문 주제였다.

물론 면접을 보시는 선생님들의 영어 실력은 영어권 외국인 못지 않았지만 나의 영어 실력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이 아닌 영어에 대한 적극성, 흥미도를 물어보셨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학교의 도움으로 어학연수를 기는 것이라면 현재의 영어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자기 자신의 적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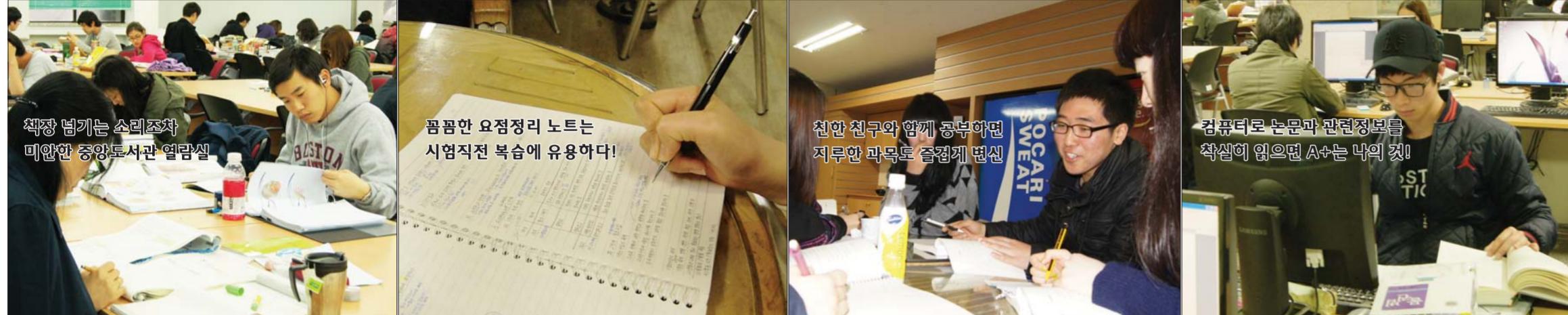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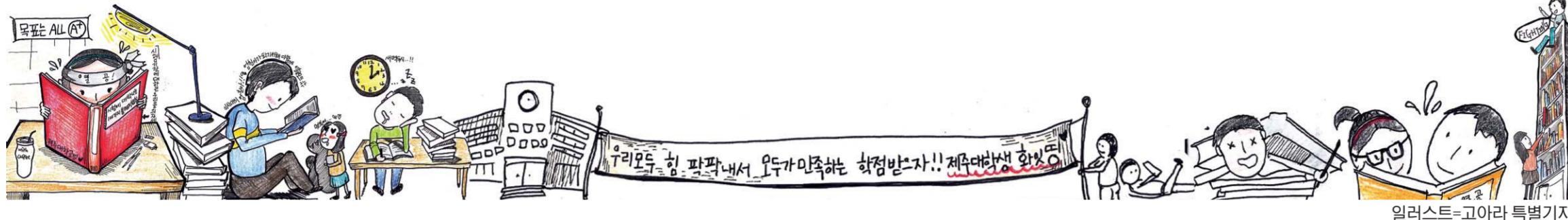
영어를 잘해서 어학연수를 보내주는 것이 아닌 앞으로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보내주는 것이 진정 의미 있는 학교의 어학연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15일 남자 7명, 여자 10명 등 총 17명으로 이루어진 우리 팀은 필리핀 CEBU로 출발했다. 우리는 6주간 필리핀 CEBU에 있는 CDU ESL CENTER에서 스파르타 코스를 이수했다. 스파르타 코스는 주5일 하루에 8시간 영어강의와 야간을 유후 3시간이 포함돼 있는 코스다.

어학연수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거나 혹은 영어공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국제교류센터의 필리핀 어학연수를 추천한다. 이번 기회로 한국에서만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닌 해외에 나가 실제로 영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몸으로 겪고 왔으면 한다.

문형석(행정 3)

공부법만 알아도 학점이 껑충껑충… “내게 알맞은 방법 쓰면 공부가 쉬워져요”



사각거리는 연필소리와 땀방울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만 조용히 들리는 곳, 중앙도서관 열람실은 시험기간만 되면 깊은 밤을 하얗게 불태우는 학생들로 가득 찬다. 그러나 가혹하게도 시험이 끝나면 A+부터 F까지 회비가 엇갈린다. 시험이 끝난 후 눈물의 쓰나미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꼭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도서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부법을 알아봤다. 자신과 어울리는 공부법을 찾아보고 이번학기에는 꼭 A+성적표를 거머쥐어 보자.

암기위주 과목에는 '요점공책'을

시험기간은 짧고 공부해야 하는 범위는 방대하다. 시험 직전까지 시험범위에 파묻혀 허우적대고 싶지 않다면 요점공책을 작성하는 것도 좋다. 단원의 핵심을 공책에 적고 중요한 포인트에 별표와 색색의 팬으로 표시해두면 효과만점이다.

이수정(행정 1)씨는 “손으로 적으면 내용을 뇌되면 기억이 오래간다”며 “암기위주 과목에 꼭 맞는 공부법”이라고 소개했다.

이 공부법은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사랑받고 있다. 단정한 글씨로 깨끗이 정리하고 핵심내용에 귀여운 스티커까지 붙여보면 공부가 즐거워진다. 밸로 글씨를 쓰는 악필의 소유자들은 컴퓨터로 요점정리를 하기도 한다. 타이핑이 빠른 사람은 순식간에 요점공책을 완성할 수 있다.

이 공부법의 최대 장점은 시험 직전에 한

눈에 요점을 풀 헤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단단한 요점공책 하나면 시험을 앞두고도 떨지 않고 펜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글씨가 느린 사람은 만리장성을 쓰는 심정으로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요점공책을 만들다가 가끔 공책을 찢어버리고 싶은 나마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꼭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깜박 풀었던 수업은 '팀플레이'가 최고!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듣는 모범생이라도 하루쯤은 꾸벅꾸벅 졸 때가 있다. 이미 놓친 수업을 되돌릴 수도 없고…, 최후의 방법은 바로 ‘팀플레이’. 여럿이 함께 모여 공부하는 이 공부법은 놓친 부분, 어려운 부분을 혼자 끊어놓는 것이다. 각 시간마다 할당량을 정해놓고 공부하면 시간 내로 공부를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공부에 잘 집중할 수 있다. 매 시간마다 공부 할당량을 조금씩 해내면 까마득하던 시험범위도 어느새 뚝딱 해치울 수 있다. 이때 스텁워치로 시간을 잰다거나 제한시간에 알람시계를 맞춰놓으면 더 효과적이다.

이 공부법은 공부와 함께 친구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함께 공부하고 밥도 같이 먹다 보면 도서관 친구는 어느새 절친한 친구가 된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공부가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다. 친구와 너무 친해지면 공부를 하다말고 수다를 떨거나 틈만 나면 간식을 먹으러 도서관 밖으로 나가게 된다. 친구와 함께 놀면 죄책감이 덜

어져서 더 위험하다. 부모님께서는 “공부하다가 새벽에 운행하는 도서관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겠다”고 말해놓고, 후문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수다를 면제 시작한 사람이 벌금을 내는 등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좋다.

산만한 사람은 '알람시계형' 공부법을

책상에만 앉으면 자꾸 다른일을 하게 되는 ‘정서불안’ 기질이 있는 사람은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산만해서 잘 집중이 안되는 이들에게 꼭 알맞는 공부법은 ‘알람시계형’ 공부법이다.

이 공부법은 수첩에 시간단위로 공부할 부분을 적어놓는 것이다. 각 시간마다 할당량을 정해놓고 공부하면 시간 내로 공부를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공부에 잘 집중할 수 있다. 매 시간마다 공부 할당량을 조금씩 해내면 까마득하던 시험범위도 어느새 뚝딱 해치울 수 있다. 이때 스텁워치로 시간을 잰다거나 제한시간에 알람시계를 맞춰놓으면 더 효과적이다.

손하나 까딱 않고 이해하는 ‘돌부처 공부법’

교재와 논문, 발표자료 등 자료가 방대한 수업에서는 ‘돌부처형 공부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이 공부법은 자료를 차분히 읽기만 하는 것이다.

손으로 쓰면서 외우지 않아서 공부효과를 의심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해력을 요구하는 시험에서 이 공부법을 따라 옮만한 것은 없다. 문제풀이를 해야하는 과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많은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에 서 이 공부법은 빛을 발한다.

고동현(행정 1)씨는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책을 읽으면 이해가 잘 된다”며 “교재 말고도 노트필기한 것과

각종 자료를 읽으면 좋다”고 말했다.

고씨의 말처럼 이 공부법을 사용할 때에는 교재 외에도 논문, 발표자료, 인터넷자료, 신문기사 등 폭넓은 읽을거리를 접해야 효과가 배로 늘어난다.

언뜻 보면 돌부처처럼 굳어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공부법으로 치근치근 공부하면 B4용지에 작성하는 서술형 문제도 두렵지 않다. 그러나 계속 읽기만 한다면 졸음폭풍에 휩싸일 위험이 있다.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는 공부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밀줄을 끊는 등 잠들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운정(화학공학 3)씨는 “MP3를 들으면서 공부하면 졸음도 쫓고 지루함도 줄어들어서 좋다”고 조언했다.

고용희 기자

<중간고사 기간 도서관 버스운행>

- 노선: 구제주, 신제주방면
- 기간: 시험기간 2주전부터 일주일간
- 시간: 새벽 12시 5분 중앙도서관 출발
- 기간: 시험기간 1주전부터 시험기간
- 시간: 새벽 12시 5분, 새벽 1시 5분, 새벽 2시 5분 중앙도서관 출발

<총여학생회 시험기간 간식 나눔>

- 기간: 4월 18일~4월 21일
- 시간: 오후 9시

○ 장소: 총여학생회 사무실 앞 선착순

- 총여학생회 시험기간 슬리퍼&담요 대여
- 기간: 4월 11일~22일(주말제외)
-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 장소: 총여학생회 사무실
- 방법: 학생증과 연락처를 기록한 후 2박3일 대여
- 보증금: 슬리퍼 3천원, 담요 천원 반납시 보증금 돌려줌.

‘제주도립 교향곡 시리즈Ⅲ Master System Series 3rd’는 제92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무대에서는 ‘말라 교향곡 시리즈’가 연주된다. 무대는 이동호 지휘자의 지휘와 오보에 김형섭, 클라리넷 김현근, 바순 김종배, 호른 김영률씨의 협연으로 꾸며진다.

제주대학교 Smart캠퍼스 구축

olleh kt

“모바일 IT 기반의 최첨단 Smart 캠퍼스 실현을 위하여 kt와 제주대학교가 손을 잡았습니다”

모바일캠퍼스 인프라구축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 강화 / 대학 정보화 위상 제고
대학내 최첨단 모바일 통신 환경 구축으로 정보화 이미지 제고

학사행정 업무 효율성 증대

업무 처리의 효율성 향상
학사 행정 업무의 이동성 제공에 따른 업무의 생산성 향상

다양한 교육 참여기회 부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탈피한 정보의 획득 욕구 충족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방법과 교육공간의 확보

커뮤니케이션 강화

유·무선 통신 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학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 고취
대학 구성원의 대학에 대한 애교심 고취

Green캠퍼스
구현

Mobile캠퍼스
구축

Open캠퍼스
실현

최상의
교육환경 제공

스마트폰 신청안내

1. 신청기간: 2011년 1월 17일(월) - 4월 15일(금)
2. 구입자격: 현 제주대학교 소속 구성원 전체
3. 스마트폰 공급방법

1) 아이폰4(16G) 공급가 (기본료 45,000원 기준)

약정개월	기기금액	시중가	지원금	제주대공급가
24	264,000			126,000
30	814,000	138,000	138,000	0
36		13,360		-124,640 월 사용료에서 분할 공제

4. 교내 안내장소

- 장소: 정보통신원 1층 교육지원실
- 전화: 064)751-5560, 5570
- 기타 예약 및 기입 문의 사항: KT 전허진 과장 (010-9838-3098)로 연락
- 5. 스마트폰 케이스 제공 (개통확인자에 한함)
 - 스마트폰 케이스는 정보통신원 1층 교육지원실에서 직접 수령
- 6. 아이폰4 범퍼 제공 (방문수령)
 - 장소: 대우일렉서비스 제주 서비스센터(연동동사무소 옆)

